

#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탄력 받나

### 타당성 조사 완료... "리모델링 보단 신축이 합리적" 지하3층 지상10층 729억 투입... 본관 역사박물관 활용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새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7173.08㎡, 주차면수 250대 규모에 총사업비 7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11일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 등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해 변경의뢰(안) 대비 총수와 주차면수는 변경이 없으나 연면적은 2350.75㎡가 감소된 2만4822.34㎡, 총 사업비는 123억원이 감소된 729억원으로 조정된 적정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청은 건축 후 67일이 경과된 본관 건물 등 시설물이 노후되고 5개 별관·10개동으로 분산 배치돼 있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시 인구 50만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에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포함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했으며 조사 기관에서는 청사 신축 사업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경제성 분석보다는 청사 규모의 적정성과 리모델링 대안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제주시 신청사 조감도.

사진=제주시 제공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부에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 9176.96㎡, 주차면수 213대 규모에 총사업비 913억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으나 2018년 12월 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돼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7173.08㎡, 주차면수 250대 규모에 총사업비 85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타당성조사를 재개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신청사가 준공되면 근대화유산으로 등록된 본관을 제주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지금의 종합민원실 앞 도로는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농촌체험휴양마을 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겨울철 난방기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낙전리·명도암·유수암·청수리·소길리·월령리·와흘리·어음2리)에 대해 내년 1월 9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은 2019년 수능 이후 미성년자의 단독 숙박에 대비해 제시에서 지정한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소방시설 사

용 및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가스·전기 등 난방시설 안전 이상 유무,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안전점검 시 수능 이후 미성년자 단독 숙박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주가 철저히 안전관리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소방화재 안전, 위생 등 관리가 부적합한 체험휴양마을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후 이행여부를 재점검해 체험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모집

서귀포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생활지원사 152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채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직접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동광노인복지센터(제1권역·대정읍, 안덕면) 30명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제2권역·성산읍, 표선면) 30명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제3권역·남원읍, 효돈동, 동흥동, 영천동, 송산동) 46명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제4권역·중앙동, 천지동, 정방동, 서흥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46명이다. 문미숙기자

## 서귀포재활용도움센터 시민결으로 한발 더

### 전국서 첫 선 보인 후 시민편의 시책 속속 선행 빈병 보증금 무제한 반환 소형폐가전 무상배출 호평 전국협업우수사례 등 뽑혀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여러 시책들이 시민편의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설치한 재활용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수시책들이 자원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시민과 행정, 처리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움센터는 클린하우스의 요일별배출제 단점을 보완해 설치한 거점형 시설로, 서귀포시에서 2016년 1월 첫선을 보인후 현재 시지역 24곳에서 운영중이다. 특히 도움센터를 활용해 첫선을 보인 ▷켄·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빈병 보증금 무제한 반환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등의 특수시책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일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 8월 첫 도입한 '켄·페트병 자동수거 보상제'는 재활용 가능한 생수 페트병이나 맥주·음료 캔을 음료수 자판기 형태의 자동수거기에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된 영수증이 출력되고,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올들어 8곳의 도움센터에서 10월까지 시민들에게 5·10·20ℓ 짜리 종량제봉투 5303장을 지급했다.

빈병(소주병·맥주병) 보증금 무제한 반환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8곳으로 확대됐다. 이 시책은 편의점 등에서 빈병의 하루 반환량을 1인당 30병으로 제한하는데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해 재활용도움센터에 자판기 형태의 무인회수기와 반환입부를 담당할 인력 8명(하루 4시간 근무)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시민 편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고 있다. 올들어 1~10월 회수량이 201만4000병으로, 2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줬다.

개당 평균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배출해야 했던 선풍기·청소기 등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서비스도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현재 22곳에서 운영중이다. 올들어 10월까지 무상수거량이 9935개로, 시민 절약액이 2980만 원에 이른다. 이용자 호응에 올해부터는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고, 대구시와 안성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 무상배출제도도 작년부터 시작해 올들어 1~10월 1031ℓ가 수거됐

다. 수거된 폐식용유는 부산으로 운반해 친환경 제재·바이오연료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움센터 10곳에서 추진중인 폐농약(원액) 안심처리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쓰다남은 농약을 도움센터내 전용 안심수거기에 배출하면, 시가 전문 운반업체를 통해 다른지방 고온소각 시설로 운반해 소각처리하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164ℓ를 수거했다.

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협업우수사례 평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전국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뽑혔다.

양근혁 서귀포시 클린하우스팀장은 "시민 입장에서 재활용도움센터 이용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특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간간이나 소규모 마을용인 중형재활용도움센터도 특허출원해 단계적으로 보급중"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 가금농가 방역전담관 운영

서귀포시는 북방 철새 도래 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을 맞아 내년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대력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가금사육농가 32호(전업농가 17호, 방역취약농가 15호)에 대해 방역전담관 5명을 지정, 매주 방역지

도를 실시하고 소독약품 880ℓ·120kg과 생석회 1700kg을 공급했다. 또 철새도래지 주요 진출입로에 AI 방역홍보물 게시와 생석회를 도포하고, 해군제독차량을 지원받아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있다.

산간읍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소독요령과 소독약품 공급 등 방역지도 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서귀·대정) 산간읍매장 소독과 월 1회

환경검사 실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시 통제초소 설치와 인력확보 준비,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을 위한 사전준비도 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되 방문할 때는 조류분변을 밟지 말고, 방문 후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가금 사육농가를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채워 세차 탈때 년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터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제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세용 가능...

- 세금 부담
- 정비 부담
- 보험 부담
- 주행거리 제한
- S보험사
- 정비
- 보험
- S정비업체
- 자금보증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 누수방지 가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